

## 시민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 관계 분석

### Analysis on the Relations of Citizen's Personal Character and Fear of Crime

성용은\* · 유영재\*\*

#### 〈목 차〉

I. 서 론	IV. 분석결과
II. 이론적 논의	V. 결 론
III. 연구설계	

#### 〈요 약〉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성, 연령, 경제수준, 범죄피해경험 등의 미시적인 개인수준과 거시적인 지역수준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연구에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수준의 특성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해석은 개인의 특성으로서 과거의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며, 미시적인 수준과 거시적인 수준의 연계를 시도하기에 앞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특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두려움이 과연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게 되며 또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우선 범죄피해경험이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거주하는 장소였으며,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는 성별과 결혼상태,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수입, 거주장소 위치에 따라서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 요인과 범죄두려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세요인 모두 범죄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 요인이 범죄두려움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특성으로서 범죄피해의 취약성,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범죄피해경험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러한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자신이 범죄피해에 대해 취약하다고 생각 하는 범죄피해의 취약성이 범죄두려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시민, 범죄피해, 취약성, 범죄정보, 범죄두려움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 여주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강사

## I. 서 론

최근 신문지상이나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에 대한 범죄기사와 직접적 혹은 간접인 범죄피해 경험은 현대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범죄피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범죄가 비록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범죄두려움(fear of crime)은 일반인들 사이에는 널리 확산되어 있다. 범죄두려움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 이외에도 외출을 꺼리게 되는 등의 사회구성원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져오며, 지역이기주의나 심지어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불신감을 조장, 급기야는 사회해체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범죄두려움으로 인해 각종 보안장치의 설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실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범죄두려움에 대한 대책은 범죄 못지않게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성식, 2000b: 133-134). 이러한 관심의 변화는 범죄의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곧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범죄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주로 객관적인 지표인 범죄율을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범죄율과 함께 범죄의 두려움과 같은 지표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원인을 밝히려는 경험연구가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즉 시민들이 왜 두려워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두려움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이 개인의 특성, 예컨대 성, 연령, 경제수준, 범죄피해의 경험 등의 요인이외에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나(Covington · Taylor, 1991: 32-37), 이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즉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 또한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수준의 범죄두려움이 과연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게 되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서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국내·외의 서적,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문헌 조사를 우선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의 주요 요인들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해서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논의

### 1. 개인적 특성의 의의

#### 1) 범죄피해경험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어떠한 사람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혹은 적게 느끼게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바로 범죄피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피해가설(victimization hypothesis)이라고도 불리는 이 주장에서는 범죄두려움이 범죄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즉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가의 개인적인 차이는 범죄피해의 경험 여부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기존의 경험연구에서는 이러한 피해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가 있었으나(Garofalo · Laub, 1978; Skogan, 1987: 147-153), 보다 최근의 경험연구에서는 이 가설이 부정되기도 하였다(Ferraro, 1995). 따라서 대체로 이 가설은 명확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

피해가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피해가설이 부정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범죄피해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범죄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실제로 범죄피해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여성이나 노인들은 실제 범죄피해의 경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범죄피해 경험이 범죄두려움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가설과는 다른 취약가설(vulnerability hypothesis)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 직접적인 범죄피해의 경험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범죄피해에 취약한 집단의 사람들이 특히 범죄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성, 노인층은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범죄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두려움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이 된다(Warr, 1987: 45-50).

또한 흑인이나 하층의 사람들도 범죄위험에의 노출에 취약함으로 인해 범죄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주장되었다(Garofalo · Laub, 1978: 242-245). 이와 같이 취약가설에서는 범죄피해의 실제 경험보다는 범죄피해의 위험성에 대한 노출과 그 취약성, 그리고 이

에 대한 심적 민감성이 범죄두려움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Hening · Maxfield, 1978).

### 3)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앞에서 논의한 피해가설이 부정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없어도 주위로부터 간접적으로 피해의 경험을 접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주장되고 있는데, 소위 이러한 간접피해가설(indirect victimization hypothesis)에서는 친지나 이웃,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해경험의 소식을 접하거나 TV, 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범죄사건의 정보에 자주 접하는 사람일수록 범죄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다(Wesley G Skogan, 1987: 150-153).

이 가설에 따르면 주위 사람들이나 TV에 자주 접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웃 등과의 유대나 사회 연결망의 범위가 넓은 사람일수록 범죄피해를 간접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범죄두려움을 더욱 느끼게 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 2. 범죄두려움의 의의

### 1) 범죄두려움의 의의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은 매우 다양하게 개념화 되어왔다.

대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조작적 정의를 대체로 자신이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추정이나 범죄에 대한, 또는 안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추정으로 개념화하였다(이운호, 1989: 154-155). ‘두렵다’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① 마음에 꺼려 무섭다, ② 염려가 되다, ③ 위풍이 있어 송구한 느낌이다’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으나 이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인 ‘무섭다’의 의미와 ‘염려된다’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질 수 있다.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원을 실제로 개인이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어 범죄와 맞부딪혔을 때 느끼는 감정인 실제적 두려움과 실제로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가상적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인 잠재적 두려움으로 구분하였으며, 퍼스텐버그(Furstenburg)도 두려움의 종류를 거리 등에서 실제로 의심스러운 사람과 대면 시에 느끼게 되는 감정으로서의 두려움과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나타나는 범죄에 대한 보도 등을 접하고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으로서 일반적 두려움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박정선, 1991: 28-29).

이렇듯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란 특정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데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일컫는 것으로 개념화 할 수 있으며(이운호, 1990: 243), 보편적으로 시민이 느끼게 되는 자신이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나 가능성에 대한 추정 또는 범죄나 안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추정으로 정

의 내리고 있다. 여기서 전자의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추정을 “specific fear” 또는 “concrete fear” 라고 하며, 후자의 범죄와 안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의 추정을 “homeless fear” 또는 “generalized fear” 라고 한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이든 범죄에 대한 공포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다(박철현, 2005: 5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범죄의 두려움을 범죄나 범죄와 관련된 상장에 의해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범죄두려움의 영향 요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인지로서 이러한 인지는 직접적인 피해경험, 간접적인 피해경험, 매스컴의 범죄보도라고 하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형성이 된다. 두 번째는 범죄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인데, 이는 범죄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집단인 고령자와 여성은 자신이 적절한 자기방위와 회피행동을 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피해가 초래하는 신체적·감정적인 손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범죄두려움도 높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환경조건이다.

이는 사회적·물리적 환경악화에 의해서 지역사회로 옮겨 간 후에 위험을 인지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그 일반적인 불안감이 그대로 범죄두려움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감, 범죄예방과 통제능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낮을 경우에 범죄두려움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다(伊藤康一郎, 이경재 역, 1992: 43). 범죄두려움은 이렇듯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 메커니즘이 실제적인 범죄율과 범죄두려움 사이에 불균형을 유발하게 하는 것인데(Gibson · Zhao · Lovrich and Gaffney, 2002),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의문과 설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피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 3. 선행연구의 검토

범죄두려움이란 개인적 여건과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절대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범죄두려움이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적 반응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혹은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범죄피해의 영향과 범죄두려움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전의 피해경험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경험과 범죄의 두려움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피해경험은 피해자가 될 주관적 인식과 같은 다른 매개변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섭 · 김지선, 1997: 31). 특히 스코건(Skogan, 198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해경험은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그는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의 두려움과 관련된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여러 인구학적인 하위집단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Skogan, 1987: 153-154). 둘째, 방어능력의 취약성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에 관해서 조은경(2003)교수는 여성과 노인들이 남성과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조은경, 2003: 19-20). 사회적 취약성(social vulnerability)이란 범죄위험성에 노출의 정도와 빈도 그리고 피해회복에 필요한 자원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이윤호(2005)교수는 범죄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고, 범죄발생 시 회복을 위한 자원이나 방법대책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예 : 소수집단이나 저소득 층 등), 야간외출이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범죄다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 등이 범죄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범죄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윤호, 2005: 362-363). 셋째, 범죄두려움에 대한 언론의 영향은 간접적인 피해경험을 강조하는 연구들로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루트에 대해 주목하는데, 특히 범죄의 두려움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루트로 주목되는 것은 TV시청과 신문의 구독과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에 주목한다.

범죄보도의 노출 정도는 특히 개인적으로 다양한 범죄피해 경험이 있을 때 범죄의 두려움과 방어적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Smolej · Kivivuori, 2006: 210-211), 범죄관련 기사를 많이 접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들이 바로 범죄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Doob · Macdonald, 1979; Williams · Dickinson 1993: 76).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가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범죄두려움을 야기하기는 요인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기도 한다(Ditton · Chadee · Farrall · Gilchrist and Bannister, 2004: 607-608).

그러나 TV와 신문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TV를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신문을 많이 볼수록 보다 범죄의 두려움을 많이 느끼며, 훨씬 더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Doob · Macdonald, 1979; Heath · Petraitis, 1987; Liska · Baccaglioni, 1990; Williams · Dickinson, 1993).

### Ⅲ. 연구설계

#### 1. 연구내용과 연구가설

이 연구는 개인수준의 범죄두려움이 과연 개인의 어떠한 특성에 의해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관련 이론 및 개념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우선 배경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독립변인인 개인적 특성 즉, 범죄피해경험의 정도, 범죄피해의 취약성,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보며, 다음으로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의 어떠한 요인이 과연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그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개인이 이전에 범죄피해를 경험하였거나, 자신이 평소 범죄피해에 대해서 취약하게 생각 할수록, 평소에 범죄와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많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가정 하였다. 따라서 이상에서 논의한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연구과제와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과제 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 I-1. 범죄피해경험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2. 범죄피해의 취약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3.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과제 Ⅱ.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의 상관관계

- II-1. 범죄피해경험과 범죄두려움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II-2. 범죄피해의 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II-3.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은 범죄두려움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과제 Ⅲ.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요인은 무엇인가?

- III-1. 범죄피해경험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줄 것이다.
- III-2. 범죄피해의 취약성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줄 것이다.
- III-3.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은 범죄두려움은 영향을 줄 것이다.

#### 2. 연구방법 및 변인의 측정

#####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이론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으로 나누어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론적인

접근으로는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문헌과 실증결과의 분석을 근간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접근으로는 서울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두려움에 대해서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법을 통한 양적인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해서 조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구성하여 대부분의 주요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SPSS12.0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동안 2006년 11월 현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550부였으며, 이 중에서 511부가 회수되었고(92.9%), 그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는 472부가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85.8%).

## 2) 변인측정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에서 ‘범죄’란 소매치기와 같은 경범죄로부터 강도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유형을 포괄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최인섭·김지선, 1997: 80), 범죄에 대한 공포를 조작적으로 측정하는 일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범죄유형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주희중, 1999: 92).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범죄두려움에 대한 기존의 경험연구의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폭행, 성폭행, 절도, 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차량절도, 납치 / 유괴 등 여덟 가지의 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측정해 보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집밖에서 소매치기나 날치기를 당할까봐 두렵다”, “집밖에서 강도를 당할까봐 두렵다”, “집에 도둑이 들까봐 두렵다”, “집에 강도가 침입할까봐 두렵다”, “자동차 절도(부속품이나 차안에 둔 물건포함)를 당할까봐 두렵다”,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두렵다” 등으로 질문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전혀 아님”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여덟 문항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의 다섯 항목에 응답토록 하여 측정하였다(alpha = .911). 독립변인인 개인특성 요인 중 우선 개인의 범죄피해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폭행, 성폭행, 절도, 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차량절도, 납치 / 유괴 등 여덟 가지 범죄유형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였다. 먼저 개인피해는 응답자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폭행 및 상해의 피해는 “집밖에서 낯선 사람에게 구타를 당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파악하였다. 성폭행의 피해는 “집밖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파악하였으며, 대인절도의 피해는 “귀하는 집밖에서 소매치기나 낯치기를 당한 적 있는가” 라는 여덟 문항으로 질문하여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 의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 = .845). 개인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결과가 더 오래 갈 것인가” 의 두 문항으로 질문하여 “전혀 아님” 에서 “매우 그렇다” 에 이르는 5점 척도를 통해서 측정하였다(alpha = .602).

마지막으로 개인의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웃사람들, 친구들 또는 직장동료와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가”, “TV나 라디오,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한 뉴스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전혀 아님” 에서 “매우 그렇다” 에 이르는 5점 척도를 통해서 질문하였으며, “뉴스시간의 범죄사건보도 이외에도 범죄사건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예: 형사, 경찰청 사람들 등)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 등을 질문하여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에서 “매주” 에 이르는 5점 척도를 통해서 측정하였다(alpha = .604).

## IV.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4-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족 월수입, 주거주택유형, 주거소유형태, 주거장소위치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185명(39.2%), 여성은 287명(60.8%)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260명(55.1%), 40대 83명(17.6%), 30대 66명(14.0%), 50대 48명(10.2%), 50대 이상 15명(3.2%)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이 285명(60.4%), 기혼이 187명(39.6%)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09명(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년제 대학 졸업 128명(27.1%), 전문대학 졸업 66명(14.0%), 대학원 이상 44명(9.3%)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가족 평균 월수입은 201~300만원 이하가 134명(2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1~400만원 이하 113명(23.9%), 101~200만원 이하 106명(22.5%), 501

만원 이상 81명(17.2%), 100만원 이하 38명(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주거소유형태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6명(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세 115명(24.4%), 월세 50명(10.6%), 기타 12명(2.5%)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는 동네의 위치는 주택가가 333명(7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가 82명(17.4%), 기타 26명(5.5%), 농지 19명(2.5%), 공장 12명(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 도	유효퍼센트(%)
성 별	남 성	185	39.2
	여 성	287	60.8
	합 계	472	100.0
연 령	20 대	260	55.1
	30 대	66	14.0
	40 대	83	17.6
	50 대	48	10.2
	60 대 이상	15	3.2
	합 계	472	100.0
결혼상태	미 혼	285	60.4
	기 혼	187	39.6
	합 계	472	100.0
최종학력	무 학	2	0.4
	초등학교 졸업	7	1.5
	중학교 졸업	16	3.4
	고등학교 졸업	209	44.3
	전문대학 졸업	66	14.0
	4년제 대학 졸업	128	27.1
	대학원 이상	44	9.3
	합 계	472	100.0
가족 월수입	100만원 이하	38	8.1
	101-200만원 이하	106	22.5
	201-300만원 이하	134	28.4
	301-500만원 이하	113	23.9
	501만원 이상	81	17.2
	합 계	472	100.0
주택소유형태	자 가	295	62.5
	전 세	115	24.4
	월 세	50	10.6
	기 타	12	2.5
	합 계	472	100.0
거주장소위치	주택가	333	70.6
	상 가	82	17.4
	공 장	12	2.5
	농 지	19	4.0
	기 타	26	5.5
합 계	472	100.0	

## 2. 분석결과의 논의

### 1) 개인적 특성 요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다음의 <표 4-2>는 범죄피해의 경험정도를 조사대상자의 집단간 비교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의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이 1.13, 여성이 1.14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경험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경험 정도 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F or t	유의확률
성별	남성	185	1.13	.284	.021	-.369	.712
	여성	287	1.14	.315	.019		
연령	20 대	260	1.09	.157	.010	5.365	.000***
	30 대	66	1.17	.383	.047		
	40 대	83	1.19	.430	.047		
	50 대	17	1.18	.193	.047		
	60 대 이상	15	1.40	.762	.197		
결혼상태	미혼	285	1.10	.224	.013	-2.402	.017*
	기혼	187	1.18	.391	.029		
최종 학력	무 학	2	1.13	.177	.125	2.447	.024*
	초등학교	7	1.46	.965	.365		
	중학교	16	1.17	.465	.116		
	고등학교	209	1.10	.219	.015		
	전문대학	66	1.13	.143	.018		
	4년제 대학	128	1.15	.307	.027		
	대학원 이상	44	1.21	.478	.072		
가족 월수입	100만원이하	38	1.16	.421	.068	.411	.801
	101-200만원	106	1.14	.418	.041		
	201-300만원	134	1.11	.226	.020		
	301-500만원	113	1.13	.210	.020		
	501만원이상	81	1.16	.283	.031		
주택 소유 형태	자 가	295	1.12	.276	.016	1.890	.130
	전 세	115	1.12	.201	.019		
	월 세	50	1.23	.563	.080		
	기 타	12	1.09	.121	.035		
거주 장소 위치	주택가	333	1.10	.172	.009	10.898	.000***
	상 가	82	1.25	.483	.053		
	공 장	12	1.55	.967	.279		
	농 지	19	1.05	.095	.022		
	기 타	26	1.07	.118	.023		

\* p <.05, \*\*\* p<.001

연령에 따른 범죄피해의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1.40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1.09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즉 연령에 따른 범죄피해의 경험정도의 t-검정 결과, t값이  $-0.369$ , t값의 유의확률이  $.000$ 으로 유의확률  $.01\%$ 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있어서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20대의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범죄피해경험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유무에 따른 범죄피해경험의 정도를 살펴보면, 미혼이 1.10, 기혼이 1.18로 기혼이 미혼 보다는 범죄피해경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즉 결혼유무와 범죄피해경험의 분산분석 결과, t값이  $-2.402$ , t값의 유의확률이  $.017$ 로 유의확률  $5\%$ 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범죄피해경험의 정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1.46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1.10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학력과 범죄피해경험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2.447, F값의 유의확률이  $.024$ 로 유의확률  $5\%$ 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입에 따른 범죄피해경험의 정도를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와 501만원 이상이 1.16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300만원 이하가 1.11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범죄피해경험의 정도를 살펴보면, 월세가 1.23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가 1.09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장소위치에 따른 범죄피해경험의 정도를 살펴보면, 공장지대가 1.55로 가장 높았으며, 농지대가 1.05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거주장소의 위치에 따른 범죄피해경험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10.898, F값의 유의확률이  $.000$ 으로 유의확률  $0.1\%$ 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공장지대에 거주하는 집단이 농지대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범죄피해경험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범죄피해경험이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거주하는 장소의 위치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4-3>은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집단간 비교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이 2.6725로 남성 2.1838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의 t-검정 결과, t값이  $-5.846$ , t값의 유의확률이  $.000$ 으로 유의확률  $0.01\%$ 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피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만일 범죄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피해결과가 더 심하고 오래갈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취약성 정도 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F or t	유의확률
성별	남성	185	2.1838	.82998	.06102	-5.846	.000***
	여성	287	2.6725	.92122	.05438		
연령	20 대	260	2.4077	.90320	.05601	1.311	.265
	30 대	66	2.6667	1.00128	.12325		
	40 대	83	2.5422	.74982	.08230		
	50 대	17	2.5294	.99169	.24052		
	60 대 이상	15	2.6000	.98561	.25448		
결혼상태	미혼	285	2.4053	.91437	.05416	-2.222	.027*
	기혼	187	2.5963	.91219	.06671		
최종 학력	무 학	2	2.2500	.35355	.25000	.610	.722
	초등학교	7	2.1429	.62678	.23690		
	중학교	16	2.5625	.94648	.23662		
	고등학교	209	2.4163	.89814	.06213		
	전문대학	66	2.5455	1.04781	.12898		
	4년제 대학	128	2.5664	.92722	.08196		
	대학원 이상	44	2.4773	.82091	.12376		
가족 월수입	100만원이하	38	2.2763	.97049	.15743	1.063	.374
	101-200만원	106	2.4151	.94736	.09202		
	201-300만원	134	2.4701	.88802	.07671		
	301-500만원	113	2.5885	.90196	.08485		
	501만원이상	81	2.5309	.91973	.10219		
주택 소유 형태	자 가	295	2.4458	.92973	.05413	2.201	.087
	전 세	115	2.6043	.89221	.08320		
	월 세	50	2.5300	.90017	.12730		
	기 타	12	1.9583	.75252	.21723		
거주 장소 위치	주택가	333	2.4474	.85435	.04682	.578	.679
	상 가	82	2.5854	1.03281	.11405		
	공 장	12	2.6667	1.15470	.33333		
	농 지	19	2.5789	.97558	.22381		
	기 타	26	2.4231	1.16355	.22819		

\* p <.05,\*\*\* p<.001

연령에 따른 범죄피해의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30대가 2.6667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2.4077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혼유무에 따른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를 살펴보면, 미혼이 2.4053, 기혼이 2.5963으로 기혼이 미혼 보다는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결혼유무와 범죄피해경험의 분산분석 결과, t값이 -2.222, t값의 유의확률이 .027로 유의확률 5%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을 한 집단이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 보다 범죄피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만일 범죄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피해결과가 더 심하고 오래갈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5664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졸업이 2.1429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족수입에 따른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를 살펴보면, 301~500만원 이하가 2.5885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이하가 2.2763으로 가장 낮았다. 즉 비교적 가족수입이 많은 집단이 가족수입이 적은 집단 보다 범죄피해의 취약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를 살펴보면, 전세가 2.6043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가 1.9583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거주장소의 위치에 따른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를 살펴보면, 공장지대가 2.6667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지대가 2.4231로 가장 낮았다. 이는 공장지대에 거주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범죄피해에 대해서 취약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집단 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가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결혼상태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4-4>는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집단간 비교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성별에 따른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이 3.0919, 여성이 3.3972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즉 성별에 따른 범죄관련 정보의 관심 정도의 t-검정 결과, t값이 -4.486, t값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확률 0.01% 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 보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범죄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며, 언론매체를 통해서 범죄사건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가지며, 범죄사건을 다루는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더 자주 시청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범죄관련 정보의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50대가 3.529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이 2.9778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즉 연령과 범죄관련 정보의 관심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2.853, F값의 유의확률이 .023으로 유의확률 5%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에 따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살펴보면, 미혼이 3.2433, 기혼이 3.3298로 기혼이 미혼 보다는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범죄관련 정보의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무학이 3.6667로 가장 높았으며, 4년제 대학 졸업이 3.0521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학력과 범죄관련 정보 관심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3.848, F값의 유의확률이 .001로 유의확률 1%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입에 따른 범죄정보 관심의 정도를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3.5965로 가장 높았으며, 501만원 이상이 3.0535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족수입과 범죄정보 관심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4.424, F값의 유의확률이 .002로 유의확률 1%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범죄정보 관심의 정도를 살펴보면, 자가 3.3175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가 2.9167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장소위치에 따른 범죄정보 관심의 정도를 살펴보면, 농지대가 3.7193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가지대가 3.2154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거주장소의 위치에 따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2.752, F값의 유의확률이 .028로 유의확률 5%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결혼상태와 주택소유형태를 제외한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수입, 거주장소위치로 나타났다.

〈표 4-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정보관심 정도 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F or t	유의확률
성별	남성	185	3.0919	.66800	.04911	-4.486	.000***
	여성	287	3.3972	.79832	.04712		
연령	20 대	260	3.2115	.79041	.04902	2.853	.023*
	30 대	66	3.2323	.75327	.09272		
	40 대	83	3.4659	.73977	.08120		
	50 대	17	3.5294	.61304	.14868		
	60 대 이상	15	2.9778	.38764	.10009		
결혼상태	미혼	285	3.2433	.79911	.04734	-1.235	.217
	기혼	187	3.3298	.70583	.05162		
최종 학력	무 학	2	3.6667	1.41421	1.00000	3.848	.001*
	초등학교	7	3.3333	1.41421	.53452		
	중학교	16	3.2500	.52352	.13088		
	고등학교	209	3.4147	.79278	.05484		
	전문대학	66	3.3889	.72932	.08977		
	4년제 대학	128	3.0521	.66724	.05898		
가족 월수입	100만원이하	38	3.5965	.80598	.13075	4.424	.002*
	101-200만원	106	3.2610	.77801	.07557		
	201-300만원	134	3.3881	.77146	.06664		
	301-500만원	113	3.2153	.71398	.06717		
	501만원이상	81	3.0535	.71581	.07953		
주택 소유 형태	자 가	295	3.3175	.73857	.04300	1.373	.250
	전 세	115	3.2406	.77428	.07220		
	월 세	50	3.2133	.91041	.12875		
	기 타	12	2.9167	.53418	.15421		
거주 장소 위치	주택가	333	3.2452	.74282	.04071	2.752	.028*
	상 가	82	3.2154	.79154	.08741		
	공 장	12	3.3056	.78442	.22644		
	농 지	19	3.7193	.91802	.21061		
	기 타	26	3.5513	.71144	.13953		

\* p <.05, \*\*\* p<.001

## 2) 개인적 특성 요인과 범죄두려움의 상관관계 분석

다음의 <표 4-5>는 개인적 특성 요인과 범죄두려움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는 독립변수인 치안환경에 대한 인식 변수와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개인적 특성 변수 중 범죄두려움과 범죄피해의 취약성이 상관관계의 유의성이 0.1% 수준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456으로 나타나 개인적 특성 변수 중 범죄두려움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범죄피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만일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결과가 더 심하고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 할수록 범죄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5>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 분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취약성	범죄정보관심	범죄두려움
범죄피해경험	1			
범죄피해취약성	.101	.101(*)		
범죄정보관심	-.114(**)	.160(***)	1	
범죄두려움	.117(**)	.456(***)	.196(***)	1

\* p <.05, \*\* p<.01, \*\*\* p<.001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과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이 유의성은 0.1% 수준에서 상관계수가 .196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주변 사람들과 대화중에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자주 이야기 할수록, TV나 라디오, 신문 등에서 다루는 범죄사건에 대한 뉴스나 소식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범죄사건을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범죄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두려움과 범죄피해경험은 유의성이 1% 수준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11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두려움이 범죄피해경험에 따라서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인적 특성 중 범죄두려움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개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이며, 이는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과 범죄피해의 경험이 많은 것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범죄두려움과 더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3) 개인적 특성 요인과 범죄두려움의 영향관계 분석

다음의 <표 4-6>은 범죄두려움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적 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를 보면 설명력은 R제곱값이 .224로 전체 분산 중 22.4%가 설명되어졌다.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이 결과에 대한 F 검정결과는 F값이 45.148로 유의수준을 .000으로 할 때, 그 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

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4-6〉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74	.224	.219	.80134
a 예측값 : (상수), 범죄정보 관심, 범죄피해, 범죄피해 취약성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86.973	3	28.991	45.148	.000
잔차	300.523	468	.642		
합계	387.496	471			

a 예측값: (상수), 범죄정보 관심, 범죄피해, 범죄피해 취약성  
b 종속변수: 범죄두려움

  

모형	종속변수: 범죄두려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747	.233		3.202	.001
	범죄피해경험	.258	.124	.086	2.089	.037
	범죄피해취약성	.425	.041	.430	10.338	.000
	범죄정보관심	.131	.049	.110	2.643	.008

또한 이 연구의 개인적 특성 요인 중 범죄피해의 취약성의 베타값이 .425, 확률은 0.000으로 유의확률 0.1%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범죄두려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은 베타값이 .131, 확률은 0.008로서 유의확률 1%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경험은 베타값이 .258, 확률은 0.037로서 유의확률 5%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으로서 범죄피해의 취약성,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범죄피해경험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자신이 범죄피해에 대해 취약하다고 생각 할수록 범죄두려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범죄 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피해가설(victimization hypothesis)이나 간접피해가설(indirect victimization hypothesis) 보다도 취약가설(vulnerability hypothesis)을 더욱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범죄피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만일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결과가 더 심하고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두려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직접적인 범죄피해 경험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준다는 피해가설(victimization hypothesis) 보다는 간접적인 피해로서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범죄두려움에 더욱 영향을 준다는 간접피해가설(indirect victimization hypothesis)이 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 주변 사람들과 대화중에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자주 이야기 하거나, TV나 라디오, 신문 등에서 다루는 범죄사건에 대한 뉴스나 소식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범죄사건을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는 것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한 요인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개인적 특성의 주요한 요인 모두 범죄두려움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중 다른 요인보다도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이 범죄두려움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적 특성의 요인으로서 개인의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의 취약성,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범죄두려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의 결과, 우선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서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의 취약성, 범죄정보관심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리고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면 과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범죄피해경험이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거주하는 장소의 위치로 나타났으며,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가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결혼상태, 마지막으로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수입, 거주장소 위치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 요인과 범죄두려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세요인 모두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개인적 특성 중 범죄두려움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개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이었다. 마지막으로 범죄두려움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적 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의 특성으로서 범죄피해의 취약성,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범죄피해경험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러한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자신이 범죄피해에 대해 취약하다고 생각 하는 범죄피해의 취약성이 범죄두려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적 특성 요인들의 그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았다. 물론 범죄두려움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는 범죄두려움이 개인의 특성, 예컨대 성, 연령, 경제수준, 범죄피해의 경험 등의 요인이 외에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피해 경험과는 상관없이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경우 범죄피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주거하는 지역이 상가지역 혹은 유흥지역, 말끔히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지역, 이웃 간의 유대가 낮은 지역 등에 거주할 경우 그 지역성원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 보다 범죄두려움을 더욱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지역수준의 특성들이 개인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면서 거시적인 지역수준과 미시적인 개인수준의 연계를 시도하는 연구에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수준과 거시적인 지역수준과의 연계 노력에서 선행해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아마도 개인적 특성이 될 것이며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거시적인 지역수준의 치안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의 취약성,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이라는 요인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 봄은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논의한 모든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몇 가지 연구과제와 연구가설의 검증에 지나지 않는데, 이 연구에서 설정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의 주요요인들 외에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다양한 치안상황과 치안여건과 관련되는 관련 변수요인들을 추후에는 함께 고려하여 범죄두려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대검찰청(2006).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 박정선(1991).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예방”. 「형사정책연구소식」, 제5호.
- 박철현(2005). “범죄피해경험, 이웃통합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 대학생에 대한 심층 면접결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1호.
- 성용은(2005). “여성의 성범죄두려움 특성과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분석”, 「범죄심리 연구」, 제1권 제1호.
- 이상현(2005). 「범죄심리학(개정판)」. 서울 : 박영사.
- 이성식(2000).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 위험해석모델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 \_\_\_\_\_(2000).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
- 이윤호.(2005). 「범죄학개론(개정판)」. 서울 : 박영사.
- \_\_\_\_\_(1996). “한국여성의 범죄에 대한 공포”. 「교정연구」, 제6호, 한국교정학회.
- \_\_\_\_\_(1993). “범죄에 대한 공포 : 그 원인과 대응”. 「형사정책연구」, 제4권 제1호.
- \_\_\_\_\_(1990).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와 경찰 : 그 상관관계의 분석”. 「행정논집」, 제19호.
- \_\_\_\_\_(1989). “범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 범죄에 대한 공포, 그 원인 및 결과와 대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 제33호.
- 조은경(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9권 제1호.
- 주희중(1999). “범죄에 대한 공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 \_\_\_\_\_(1996). “범죄에 대한 공포 연구와 그 정책적 함의”. 「형사정책」, 제8호.
- 최인섭·김지선.(1997).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Lynch, Michael J., Raymond J. Michalowski and Groves W. Byron. 이경재 역.(2004).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와 형벌」. 서울 : 한울아카데미.
- 伊藤康一郎.이경재 역.(1992).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연구 : 일본에서의 법현실과 불안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0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Covington, J. and Taylor R. B. (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Implication of Between and Within Neighborhood Sources for Current Models”. Sociological Quarterly, Vol. 32.

- Chadee, D. A., Austen, L. B. and Ditton, J. C.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Likelihood and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 Evaluating Risk Sensitivity as a Mediating Concept" .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7, No. 1.
- Ditton, Jason, Chadee, Derek, Farrall, Stephen, Gilchrist, Elizabeth and Bannister, Jon. (2004). "From Imitation to Intimidation: A Note on the Curious and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Crime and Fear of Crime" .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4, No. 4,.
- Ditton, Jason and Stephen, Farrall. (2000). *The Fear of Crime*. Vermont : Ashgate Publishing Company.
- Doob, Anthony N. and Macdonald, Glenn E. (1979). "Television Viewing and Fear of Victimization: Is the Relationship Causal?"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7.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N.Y. :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arofalo, James and Laub John. (1978). "The Fear of Crime : Broadening our Perspectives" . *Victimology*, Vol. 3.
- Gibson, Chris L. Zhao, Jihong, Lovrich, Nicholas P. and Gaffney Michael J. (2002). "Social Integration, Individual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 *Justice Quarterly*, Vol. 19, No. 3.
- Heath, Linda and Petraitis, John. (1987). "Television Viewing and Fear of Crime: Where Is the Mean World?" .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8.
- Hening, Jeffrey and Maxfield, Michael G. (1978). "Reducing Fear of Crime: Strategies for Intervention" . *Victimology*, Vol. 3.
- Jackson, Jonathan. (2004). "Experience and Expression: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in the Fear of Crime" .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4.
- Liska, Allen E. and Warner Barbara D. (1991). "Functions of Crime: A Paradoxical Process"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6, No. 6.
- Liska, Allen E. and Baccaglini, William. (1990). "Feeling Safe by Comparison: Crime in the Newspapers" . *Social Problems*, Vol. 37.
- Liska, Allen. E., Sanchirico, A., and Reed, D. (1988). "Fear of crime and constrained behavior : Specifying and estimating a reciprocal effects model" . *Social Forces*, Vol. 66.
- Platt, T. (1971). *The Politics of the Riot Commission*. New York, NY : MacMillan.
- Platt, T. and Cooper L. (1974). *Policing America*.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Skogan, Wesley G. (1987). "The Impact of Victimization on Fear". *Crime & Delinquency*, Vol. 33, No. 1.
- Smolej, M. A. and Kivivuori, J. A. (2006). "The Relation Between Crime News and Fear of Violence".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Vol. 7, No. 2.
- Quinney R. (1980). *Class, State and Crime*. New York : Longman.
- Ross Catherine E. (1993). "Fear of victimization and health".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9, No. 2.
- Warr, Mark. (1987). "Fear of victimization and sensitivity to risk".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3, No. 1.
- Williams, Paul and Dickinson, Julie. (1993). "Fear of Crime: Read All About It?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paper Crime Reporting and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33.

## ABSTRACT

### **Analysis on the Relations of Citizen's Personal Character and Fear of Crime**

Seong, Yong-Eun · Yoo, Young-Jae

In recent studies for explaining the causation of crime fear shows interest and effort in studies attempting microscopical individual level and macroscopical local level of sex, age, economic level, crime damage level and etc. However,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interest and analysis of individual on characteristics of these local level may has its difference depends on crime damage experience in the past, fragility precision of crime damage and interest on crime relating information and processed positive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nd relation of crime fear on individual level before making an attempt of connecting microscopical level and macroscopical leve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positive verification of how people feel about crime fear depends on individual's characteristic and also how much effect would they receiv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shown that first, population statistical characteristics that crime damage experience is statistically meaningful of its difference of each group are age, status of marriage, final education status and residential area and for the fragility precision of crime damage was sex and status of marriage and for the interest about the crime relating information has meaningful difference statistically of each group depends on sex, age, final education status, income of the house and location of residential area. Second, after processing correlation analysis on individual characteristic primary factor and crime fear, the result of 3 primary factor independent variable all shows 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lation with crime fear and especially fragility primary factor on crime damage showed the most high correlation with crime fear. Lastly, fragility of crime damage, interest on crime information and crime damage experience has effected a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nd especially fragility of crime damage which the person thought to be the most fragility on crime damage out of these individual characteristic primary factor showed to have the most effecting primary factor.

**Key Word: Citizen, Crime damage, Fragility, Crime Information, Fear of Crime**